

2/21/16

설교 제목: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찾아 오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 요한복음 4 장 1:26

- (요 4: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절관주** 요 3:22
- (요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 (요 4: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 (요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 (요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절관주** 창 33:19, 수 24:32
- (요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요 4: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요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요 4: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 (요 4: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요 4: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절관주** 요 6:34

- (요 4: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요 4: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 (요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요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요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절관주 롬 8:4, 빌 3:3
-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요 4: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요 4: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보다 앞서 이 일을 행하고 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드디어 예수님 측에서 세례를 준 것이 세례 요한 측에서 세례를 준 것보다 많다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도 이 상황이 신경에 거슬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 뒤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의 사역은 어디까지 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만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닌데 벌써부터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하게 충돌을 빚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 간 것 같은 뉴앙스가 비칩니다.

(요 4: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요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이 지름길임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다니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 년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앗수르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혼합시키기 위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앗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앗수르가 점령했던 다른 지역, 바벨론과 쿠다 등지에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결과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그들의 종교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중에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가 되어 버렸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스 4:1)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 4: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 4: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 4: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스 4: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스 4: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결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으며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요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 간절히, 마땅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 모두가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기꺼이 들어 가신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수님께서서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후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며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유대 남자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 신을 찾아 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찾아 오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남아 있어 계속 신을 찾으려고 추구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한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스스로 쌓아 놓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한마디로 높고 높으신 유대인 나으리께서 어찌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느냐는 은근히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주 탁월한 상담가이십니다.

(요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로 그녀의 관심을 이끌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됩니다.

(요 4: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깊은 우물 물을 퍼 올릴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주겠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충분히 마시게 했던 우물인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요 4: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생수에 비유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늘의 것을 설명해도 야곱의 우물에 만족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주는 명예, 재물, 지식 등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여인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요 4: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인 남편에 대해 꼬집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남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의 '남편을 불러 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요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첫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후 힘든 삶의 무게를 해결해 보고자 계속 다른 남자들을 찾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인 6 시에 홀로 우물을 찾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찾으셨던 겁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유대인 나그네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의문을 품고 있던 예배에 대해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참 예배는 예배의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잘 짜여진 순서에 의해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 놓고 말씀 속에서 책망과 또 위로를 들으며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 4: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요 4: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때껏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죄인에게 '나는 너의 메시아'라고 자신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알려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고민하는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